

# 혈우 환우의 보람된 삶에 기여하는 혈우병 관리의 글로벌 리더



VISION

CORE  
VALUE

**복지** 다가가는 복지서비스

**의료**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연구** 미래지향적인 혈우병 연구

**정책** 혈우병 관련 정책 건의

## 한 발 더 가까이, 한 걸음 더 높이 Step-up Approach, One Step Up



### Kindly Open Mind 친근하고 열린 마음

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아무런 장벽 없이 다가갈 따뜻한 마음으로 환우들을 보듬어 줌



### Heartful Professionalism 따뜻하고 믿음직한 전문성

그 누구보다 혈우 환우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 Fervor & Patience 끈기있게 노력하는 열정

자기희생을 바탕으로 어려움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혈우 환우를 위한 열정을 가지고 노력함



한국혈우재단 소식지

# 그 응 김

Korea Hemophilia Foundation  
2023 5 / 6 vol.191

초대석

Hemo 특특

특별기고

세계혈우인의 날 기념공모전

환우를 위한 생활상식

재단소식

안내

최운진 위원장 편

비만과 당뇨병

환우의 올바른 운동방법 3편

혈우재단 컵케이크 만들기 체험





## “최고의 작품은 이미 내 안에 있다”

프롤로그(Prologue)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 ‘다비드 상’ ‘피에타’ 등의 작품으로 오늘날까지 천재라 불리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조각가이자 화가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는 명성과는 달리 예술가가 되기 위한 여정이 순탄치 않은 삶을 보냈다.

여섯 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아들이 몰락한 집안을 세워주기를 바라며, 공부에 전념하길 바랐지만, 미켈란젤로는 오직 대생에만 몰두했고, 이런 그를 아버지와 삼촌들이 때려가며 설득했습니다.

결국 미켈란젤로는 고집을 꺾지 않고 재능과 노력의 결과로 예술가로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미켈란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다비드상 같은 훌륭한 조각상을 만들 수 있는냐고.

그러자 미켈란젤로는 “이미 조각상이 대리석 안에 있다고 상상합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은 깎아내어 원래 존재하던 것을 꺼내 주었을 뿐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조각 전 울퉁불퉁한 돌덩이 안에서 이미 아름다움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아닐까요. 최고의 작품은 이미 우리 안에 있을지 모릅니다. 단지 그것을 잘 깎아내 훌륭한 작품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 190호 퀴즈 정답

1. ④
2. 결막염

총 26분이 퀴즈 정답을 맞으셨습니다.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코헬지』 188호 퀴즈 정답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은을 김도연 김동우 김복근 김영미 김영진 남경훈 문영희 문진희 박선화 박찬우 서유진 신현미 심승민 엄소영 오대은 이대형 이병길 이은현 이혜환 장주옥 정민철 정주호 주다울 최용심 홍문규 <총 26명>

※ 환우 수기/인터뷰를 상시 공모합니다.

- 주제 및 분량 : 나만의 운동방법, 치료 이야기, 취업 후기, 여행 체험기, 취미생활 등 자유주제(A4 1~2매)
- 양식 ① 수기(자유 작성 후 이메일 송부 / 글과 관련된 사진 2~3장 첨부해 주세요)  
② 인터뷰 : 대면(시간, 장소 협의) / 서면(인터뷰 질문지 송부 및 작성 후 회신)  
중 선호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접수기한 : 2023년 7월 3일

※ 문의 및 접수 : kohemoffice@naver.com(참여하신 분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에필로그(Epilogue)

- 191호를 마무리하며 -

‘아름답다’의 어원을 아시나요?

‘아름답다’라는 단어의 어원에 대한 주장은 여러 가지입니다. ‘한 아름’처럼 투박하고, 넉넉한 양을 뜻한다는 의견, 안고 싶은 만큼 소중한 것을 가리킨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어학자 서정범 교수는 ‘아름답다’의 다양한 어원 주장 중에 ‘아름’의 ‘아’가 ‘나’를 뜻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아름’이 ‘나답다’라는 어원을 갖는다는 이론입니다.

서 교수는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기준은 저마다 달라 주관적이고 개성적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나다운 특성이 개관적이고 보편화 할 때 아름다움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인정할 만큼 나뉘어진다면 아름다움의 말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사람을 보면 멋있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남의 기준과 잣대를 너무 의식해서 ‘나다운’을 잃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남들의 시선에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고 나답게 자신의 일에 몰두해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산해 보시죠.

- 편집자 올림 -